

SINCE 2009

SEOUL ROSE CLUB

NEWSLETTER

봄호 | 2017. 3. 31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CONTENTS/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 04 로자리안 : INES DIAZ DE LICANDO
- 08 멘토를 찾아서 : 나무와 숲 “남효창박사”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 10 민화로 만나는 장미 : 장미수가 놓인 조바위
- 12 세계장미대회 : 우루과이 2016

장미 정원 Rose Gardens

- 15 국내장미정원 : 꽃 축제 효시, 에버랜드 '장미축제'

발행일자 _2017. 3.31

편집인 _김옥균, 김수연, 이성현

편집디자인 _박혜미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

회원접수 _

문의 ; seoulroseclub@naver.com

황보순 로자리안 ; 010-4761-2373

입회비 ; 100,000원 (일십만원정)

장미 품종과 장미 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 20 로즈클럽 장미공부 : 장미를 예쁘게 피울 수 있는 재배 테크닉 (저자 스즈키 미츠오)
- 22 장미의 사계 Chichy's Rose Garden 봄 화분장미 관리하기
- 27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국내 절화 장미 품종, '필립'
- 28 일본장미품종 : Hector Deane (HT), Commandant Beaurepaire (B)

장미 식재와 경관 Rose Planting & Landscape

- 30 장미정원 디자인

장미와 정원 소식 Rose & Garden News

- 35 장미 서적 소개 : '장미 병해충과 생리장해 이렇게 막는다' (저자 차병진 외)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INES DIAZ DE LICANDO



INES DIAZ DE LICANDO

Married and has a son, and lives in Montevideo and Punta del Este, Uruguay, South America.

Graduated as 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Bachel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Member of the Asociación Uruguaya de la Rosa and delegate of Uruguay in the Conservation & Heritage Rose Committee of the World Federation of Rose Societies.

Also a member of the Heritage Rose Foundation, the Société Française des Roses and Roses Anciennes en France, Asociación Argentina de Rosicultura and Hybridizers Rose Association.

Awarded Bronze medal in the Photographic contest organized at ROSAFRICA 2012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과 Punta del Este를 오가면서 살고 있다. 공인회계사이며 우루과이 장미 협회, 아르헨티나 장미원에 및 육종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VALON, MY GARDEN OF ROSES

Since my childhood I have enjoyed long spring and summer months in my family property garden, surrounded by plants and flowers. Those delightful seasons have left in me a latent taste for gardening that I would discover and develop almost fifty years later through my passion, roses.

For more than a decade we have owned our house in Punta del Este, a seaside resort that has become an important tourist center in South America since its foundation in 1907.

Avalon, the mythical British island, where the legend tells that the Excalibur sword of King Arthur was forged and where he was taken by Morgane fairy to recover from the wounds suffered in its last battle of Camlann, is the name that takes our villa in San Rafael, Punta del Este. Avalon is located in this placid and silent neighborhood, populated with pine forests and there is my rose garden.

A rose garden was not in my mind at first, when we started to restore the house and its garden. In the beginning, a few unidentified rose bushes of varying types were incorporated. At that time I did not even know that there were species roses, ancient and modern ones and I never imagined that each of my roses had a name!

南美의 로자리안- Inés Díaz De Licandro, 그리고 이네스의 장미정원

어린 시절 꽃과 식물이 가득한 집 정원에서 봄여름 내내 뛰어다니던 시간들, 그 아름다운 기억이 내 마음속 정원에 대한 관심으로 남아있었던 것일까요? 그 시절 그 아름답던 순간들이 5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장미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정원에서 재현되었습니다.

푼타 델 에스테(Punta Del Este)는 1907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제는 남아메리카대륙에서 가장 명성 있고 멋진 우루과이의 해변 휴양도시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곳 이 아름다운 도시에 우리가 Summer House를 가지게 된 것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푼타 델 에스테의 상 라파엘(San Rafael)지역에 있는데, 아름답고 소나무가 즐비한 숲속에 둘러싸인 조용하고 아늑한 우리마을, 아바론이 그 곳이지요. 아바론(Avalon)은 영국의 어디엔가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아서왕의 전설의 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이 평화스러운 마을에 우리가족의 장미정원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를 와서는 장미정원에 마음을 두고 있진 않았습니니다. 당시에는 장미가 종류마다 이름이 각각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질 않았고, 장미원종, 고전장미, 현대장미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지요. 그저 품종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장미가 몇 그루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However, during the first summer my love for roses was already born, by the mere observation of the first plants and flowers grown in Avalon. I also met at that time Octavio Sciandro, the Uruguayan expert, cultivator and lover of roses, who encouraged me to cultivate them with his knowledge, enthusiasm and permanent help.

Little by little, different modern roses have been incorporated to my garden; I wanted to have blooming roses from spring until Easter and the first colds. At first there were some 50 bushes, by the next year they were almost 100, then 200 ... and now there are about 700. The garden has grown through time and it turned to be a mono varietal garden, a rose garden.

I remember with special emotion when roses from my family garden arrived to Avalon, before the sale of the property. I wanted to keep them in my garden because they carried very dear memories to me. 'Lady Hillingdon', the beautiful yellow Tea rose was my grandmother's favorite and she always admired its nodding corollas. She also used to make beautiful and delicate bouquets of 'Spray Cécile Brunner' roses that I would give as a present to my first-grade teacher, at the beginning of March.

그러다가 첫 여름을 지내면서 장미꽃에 대해서 약간 관찰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장미에 대한 애정을 싹트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침 우루과이의 장미전문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의 지식과 열정, 그리고 지속적인 도움이 내가 장미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품종의 장미를 정원에 심게 되었고, 점차 나는 봄부터 늦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죠. 첫해는 50여종의 장미가 생겼고 그 다음해는 100주, 그리고 200주, 이제는 700주의 장미가 이 곳에 식재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미만이 있는 정원, 정말 로즈 가든이 된 것이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직 나는 옛 부모님과 살던 그 집 정원에서 키우던 장미를 이 곳 정원으로 옮겨왔을 때의 감회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추억을 갖게 해준 그 옛 정원의 추억을 나의 새로운 정원에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할머니가 몹시 좋아하셨던 아름다운 노란색의 티 장미(Tea Rose) 레이디 해링던(Lady Hallingdon)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레이디 해링던 장미가 피어있을 때, 마디 끝에서 고덕이는 듯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즐거워 하셨습니다. 또 세실 브루너 스프레이 장미(Spray Cécile Brunner)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세실 브루너 장미로 나에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부케를 만들어 주곤 했지요. 그 아름다운 기억을 회상하면서, 나도 장미의 계절에 나의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이 장미로 부케를 만들어 선물을 하려 합니다.

The design of the rose garden has evolved until 2014 when it was restyled: colors were harmonized, varieties were matched and some iron structures were incorporated to enhance the different height of plants.

Today, Avalon is my paradise, the site where I live with my husband and my son during summer seasons, far from the noisy and busy capital city, Montevideo. Roses have become a passion for me and I devote to them many hours of my life, in parallel with my work as a professional. Taking care of them led me to increase my knowledge and study about each of them as well as to research about their history and features.

Now I am a passionate of The Rose, not only of my roses. I love The Rose, The Queen of Flowers, the flower that has enchanted and fascinated men and women over the world for many millennia.

Many people ask me about my favorite rose. Perhaps today it is one specific rose and tomorrow another one might struck me for its intense scent or its beautiful colors pierced by light rays. Anyway, above all choices, I will always feel a particular and emotional predilection towards those roses that were present at home during my childhood, the scent of which I shared with my late and dear beloved grandmothers.

그 동안 정원을 조성하면서 꽃을 심고 디자인하는 일은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완성도가 정비되어갔습니다. 정원 색깔의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식재를 위한 품종선택에 몰두하는 일도 많았고, 식물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구조물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늘의 아바론은 우리 가족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수도 몬테비디오를 피해서 여름 동안 이 곳에서 지냅니다. 장미는 이제 나의 열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직업과 병행하면서 생활 속 많은 시간을 장미에 쏟고 있습니다.

장미를 가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미에 대한 지식과 공부가 증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미의 역사적 관점과 형태에 대한 연구도 하게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원에 있는 장미만이 아니라 장미 문화 전반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아마도 오늘 좋아하는 것과 내일 좋아할 장미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장미는 강렬한 향기로, 또 어떤 장미는 아름다운 색깔로, 또는 모양으로, 나를 충족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장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늘 따뜻하게 나를 대해주셨던 돌아가신 할머니와 어린 시절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던 그 장미들을 정원에서 만날 때 정말 특별한 애착을 느낍니다.

글, 사진 ; Inés Díaz De Licandro





사람과 장미 Rosarians, Rose Societies, Rose Breeders

서울로즈클럽 2017 멘토를 찾아서 ‘나무와 숲 남효창박사’

남효창 선생님께서는 숲, 식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다르신 것 같았습니다. 식물을 잘 아시고 장미에 관한 지식도 많으셨는데요. 장미를 어떻게 이해할건지 장미마다 가지고 있는 품종이나 토종이 관계하는 생물 종 등이 있는데 어떤 장미 하고 특별한 연관성이 있고, 상호관계가 있는지 연구해보라고 하셨는데요.

기억에 남았던 내용들은, 조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경의 목적과 선생님의 목적은 상반되고 충돌이 된다고 하셨어요. 조경을 잘 하려고 하는 목적은,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식물을 위한 것은 아니라서 식물의 생리를 이해하지 않고 사람만을 위한 정원 조성은 자연에 대한 폭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조경을 하되 최소한 나와 그(식물)가 같이 동의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시며, 반려견 들에 대한 예를 들어 주셨죠. 보드콜리와 풍산개의 집터는 선생님이 사시는 집터 보다 훨씬 더 좋은데 내어주신 이유는, 기쁨을 주는 그 친구들이 오랜 시간 집에 머물고 있고 일도 많이 해주니 선생님이 좀 불편해도 하루 종일 집을 지켜야 하는 친구들이 행복하면 선생님의 더 행복감이 더 커져 기꺼이 그 땅을 내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조경도 필요한데, 생각을 좀 돌려서 인간만을 위해서 존재 하는 것이 아닌, 조경도 장미를 배려한 조경으로 어떠한 환경에서 최상의 상태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식물의 생리를 잘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장미의 생리를 알고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장미가 덜 불편할지를 생각하고 장미의 입장에서 심을 것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는 말씀 이셨습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에 대해 섬세하게 배려하고 환경을 잘 보존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 맛있는 차, 따뜻한 난로, 훈훈한 말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이 봄의 끝 자락에 있는 지금도 여전히 여운이 남고 생각이 납니다.

글 ; 한주는 로자리안

찾았던 외부 행사로 인해 미뤄오다 워크숍을 늦게나마 다녀왔던 그 겨울의 아침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더하여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눈발이 날리기도 하여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여행에 대한 즐거운 만큼은 무척 컸던 날이었습니다. 수년 전만해도 대학가 MT의 상징이었던 강촌유원지를 지나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껴도 보고 아련한 옛 기억도 꺼내어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춘천 남산면! 이곳은 가까운 곳에 나미나라공화국이라 할 만큼 전 세계 관광객이 많이 찾는 남이섬도 있고 봉화산 근처 아홉 구비를 돌아 떨어지는 50m의 웅장한 물줄기가 장관인 구곡폭포도 있고 자연 속에 유럽식 정원을 꾸며 놓은 제이드 가든도 있어서 친근한 이름이지만 장미문화와 장미의 나눔을 위해 추운 겨울을 뚫고 달려 온 로즈클럽 회원들과 함께 오늘 이 추운 날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줄 낯선 이름의 남효창 박사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수동리에 들어섰습니다.

점심으로 회를 먹고 난 후 커피 한잔 함께 마시면서 세월을 이겨보기도 합니다. 커다란 절벽 아래로 푸르게 펼쳐진 탄부 저수지를 지나서 가니 저 멀리 아름다운 비경 속에 놓인 작은 집이 보입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는 박사님과 정겨운 인사를 하고 클럽에서 준비한 데이비드 오스틴 장미 3그루를 내려놓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1명이 앉기엔 약간 좁았지만 서로의 훈훈한 온기와 따뜻한 난로까지 있어 오히려 덥기까지 하였습니다. 난로를 보면서 군고구마도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식물에 대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회원들이 각자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화답하여 남박사님은 손수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셨고 자신의 저서인 "나무와 숲"라는 책에 친필로 직접 서명해 주시는 수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숲과 나무"가 아니고 왜 "나무와 숲"일까? 하고...

수동리 산자락에서의 모임은 3시간의 아련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산 속을 거닐지 못한 아쉬움에서 인지 저희를 붙들고 참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는데 지금도 제 머리에 남아 있어 가끔 꺼내어 보곤 합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근처에서 맛있는 고기 파티를 하였습니다. 낮에 먹은 맛있는 송어 회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즐거운 마음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온 숙소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질문 시간도 있었고 2017년을 위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다음 날 새벽까지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정말로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음과 마음이 더 가까워진 만남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완전한 봄이지만 이 글을 통해 그날을 회상하며 마음을 또 한 번 잡아 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신 남박사님께, 그리고 이 날 행사에 만사 제치고 참가해 주신 회원들께도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사진: 황보순로자리안





민화로 그린 장미

장미수가 놓인 조바위

현대 민화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고전 민화와는 다르게 새로운 기법이나 시도가 다양하게 접목되어 새로운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장미수가 놓인 조바위는 장미꽃 부분을 마치 전통자수에서 볼 수 있는 자련수의 느낌으로 세밀하게 묘사 하였습니다. 거기에 진주 구슬과 비단실을 오브제로 사용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조바위는 조선시대 후기의 부녀자가 쓰던 방한모로 가장 널리 사용하였으나 역사는 가장 짧습니다. 겉은 검정 비단, 안은 명주, 무명 등을 사용하고 옥, 마노, 비취 등으로 앞뒤를 장식하고 오색수술을 달았으며 은줄, 산호 줄로 연결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돌날 여아들의 예장용 쓰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 그림 ; 이은주 로자리안



장미와 문화 Rose Culture & Life

세계장미대회 – 우루과이 2016

ROSES IN THE SOUTH, PUNTA DEL ESTE - URUGUAY 2016

WFRS 지역대회가 남미 우루과이에서 11월 7일~11일까지 진행이 되었다. 남쪽의 장미란 주제처럼 남쪽의 장미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인천공항을 출발 40시간 만에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다. 정말 먼 여정이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해 볼만한 여정이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았던 장미 여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과 브라질을 경유해 우루과이로 들어갔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온 마이바라 로자리안이 합류해서 김옥균 로자리안과 총 세 명이 참석을 했고, 중국에서도 2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참석을 했고, 독일 남아프리카, 미국,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로자리안들이 250여 명 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된다. 물론 상반기에 한국을 방문한 세계장미협회장 켈빈 회장과의 인사를 나누었다.

남쪽의 장미란 주제처럼 우루과이는 여름으로 들어가려는 계절이었다. 많은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을 했고, 장미도 가장 만개한 계절이었다. 세계장미협회의 지역대회는 가장 좋은 계절의 지역을 찾아가며 대회를 준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물론 기후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장미와 문화를 느끼기에 충분한 지역대회가 되었다. 기회가 된다면 지역대회를 돌며 세계의 장미와 문화를 접해보고 싶다는 욕심도 가져 보았다.

사전 등록과 함께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로즈 쇼가 열리는 별관으로 이동하면서 대회가 시작이 되었다. 정원 장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루과이의 다양한 장미가 세계인들과 만나는 쇼가 준비되었다. 이후 폰다 델 에스데 요트클럽으로 이동해 바다로 나가 도시 전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며 도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밤 8시. 드디어 첫 행사로 “남반구에서 장미”란 주제로 켈빈 회장의 주제 강의가 시작되었다. 유익한 강의와 흥미진진한 정원 방문 및 훌륭한 문화 체험을 경험하며 멋진 추억과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수년간 부지런히 준비해준 개최 측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늦은 밤 10시, 환영 리셉션에 참석을 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로자리안들이 하나가 되어 축배를 들며 5일간의 일정을 기대하게 한 장미의 밤이 되었다.

장미 강의는 스페인 로즈 가든, 장미정원 설계, 정원 풍경 장미, 건강한 장미 가꾸기, 장미의 영양, 장미의 전시와 같은 주제로 세계를 대표하는 로자리안들의 강의를 이어졌다. 장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제는 다 알아들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뒷좌석에 앉아 사전을 찾아가며 하나하나 알아가며, 장미에 대한 힌트를 얻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강의 후 이어진 장미정원 방문은 우루과이만의 장미정원을 흡족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각 정원마다 특징 있고, 여유롭게 정원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한 송이 장미를 가지고 그 앞에서 긴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들이 부럽기도 했다.

나는 장미정원을 돌아보며 어떻게 장미정원을 가꾸고 있는지 유심히 볼 수 있었다. 장미를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경관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 등 식물 관리 이력을 유심히 보았다. 물론 한 계절을 보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역시 여행은 여러 가지로 배우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되는대로 주택과 정원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노력했다. 산책길에 주택가를 돌며 정원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참 좋았다. 주택정원을 돌아보며 드는 생각이 “집은 정원을 담는 그릇”이란 생각을 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정원과 집이 만나는 시점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그 작은 정원을 중심으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앉아 쉬거나 집 안에서 정원을 바라보는 장미원을 구성하고 있었다. 장미원 하나로 정원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이용한 장미정원을 구성하는 기법을 배울 수 있었다. 현관과 창문 앞은 그런 풍경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공간이다.

또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서울로즈클럽을 알리고,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우리의 소식지는 장미 친구들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권의 소식지를 받아 들고 깊은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이었다. 기회가 되면 우리도 많은 로자리안들이 참여해보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우루과이의 장미와 문화는 먼 거리의 여행이었지만 모두를 감동하게 했던 축제가 되었다. 내년 정원문화 축제를 기획 할 때 더 유익한 축제를 준비해보고 싶은 동기도 얻고 돌아왔다. 정원 여행은 일상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끌어올리게 하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로즈클럽에서도 국내 장미정원을 함께 돌아보며 장미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좋겠다. 긴 여정을 오가는 길에 함께한 김옥균로자리안의 모습을 보며, 장미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장미란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 재미있는 세상이 보인다는 김옥균 로자리안의 이야기가 아직도 마음에 강하게 남는다. 장미는 참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 해 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문화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더 끌리는 이유가 있다. 나는 로자리안 이다.

글, 사진; 이성현 로자리안



장미 정원 Rose Gardens

국내장미정원

국내 꽃 축제 효시, 에버랜드 '장미축제'

지난1985년 6월 용인자연농원시절 시작된 장미축제는
국내 '꽃 축제'의 효시로, 우리 국민들에게 꽃을 매개로 한 여가문화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자연농원' (現 에버랜드)은 당시 국민들이 가장사랑하는 꽃으로 조사된 장미를 이용해
'꽃은 감상용'이라는 선입견을 넘어 음악,공연 등 흥겨운 축제 공간으로 의미를 확대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꽃 축제 문화를 선보였다.

이렇게 탄생한 장미축제에는 지난30여 년 간 총 6천만 송이의 장미가 선보였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구인 약5천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국민들과 함께해온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장미축제는 레저업계와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현재 진행중인 국내70여 개 꽃 축제의 시발점이 됐으며,
지역관광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버랜드는 장미축제시작에 맞춰 야간개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야간개장은 1982년 야간통행금지 해제 이후 별다른 즐길 거리가 없었던 시절, 부족했던 가족들의 여가 문화를 야간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사파리로 대변되던 자연농원의 이미지를 온 가족이 함께 축제를 즐기는 종합레저공간으로 바꿔 놓을 만큼 대성공을 거뒀고, 장미축제가 처음 개최된 1985년은 연간 193만 명이 방문하며 자연농원 개장후 최초로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장미축제가 지난 30여 년 간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데는 에버랜드 만의 조경관리 노하우와 지난 30여 년간 총 20만 명이 넘는 에버랜드 임직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다. 에버랜드 장미축제는 매년 10월 말부터 준비에 들어간다. 기본골조에 벚꽃을 활용해 피복관리를 실시하는데 동절기 관리비용에만 연간 2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한 우천시 흙탕물이 장미에 튀어 발생할 수 있는 병충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250톤의 바크(Bark, 나무 껍데기)를 깔아놓는 세심한 관리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장미축제의 의미와 역사

에버랜드는 1985년 국내 최초 꽃 축제 '장미축제'를 개최하며 축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후 각종 행사와 방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연계한 장미축제는 국내 여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며 에버랜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해왔다.

용인자연농원 (현 에버랜드)은 1976년 개장 당시, 현재의 장미원 지역에 122품종 3,500그루의 장미를 심었다. 장미를 택한 것은 당시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장미라는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손님들에게 아름답고 화려한 꽃으로 맞이하기 위함이었다. 장미는 진한향기와 화려한 자태 이외에도 식물 중 가장 오랫동안 꽃이 핀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용인지역은 장미를 재배하기에 기후와 토양이 적합하지 않았다. 땅을 1.5m의 깊이로 파내어 다른 흙으로 메워 장미를 심고, 한랭한 기후에 얼지 않도록 그루마다 짚으로 싸매는 등 자연농원 직원들은 세심하고 꼼꼼한 손길로 장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이후 끊임없이 새 품종을 도입하고 관리한 결과, 1985년에는 150품종 5,000그루의 장미를 확보하게 됐는데 10년에 걸쳐 가꿔온 장미원은 풍요롭고 화려한 자태로 감탄을 자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놀이시설과 동물원 위주의 관람패턴과 놀이문화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축제' 문화를 도입하기로 했고, 1985년 6월 국내 최초로 꽃을 테마로 한 '장미축제'를 선보이며 우리나라 꽃 축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조용히 관람만 했던 장미원은 꽃,음악,공연 등이 어우러진 '장미축제'를 통해 국내 꽃 축제의 산실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국내에 많이 생겨난 꽃 축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화사한 장미화단을 축제 공간으로 바꾼 장미축제는 사파리로 대변되던 자연농원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으며, 에버랜드가 레저 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뒤를 이어 1992년 봄의 전령사 '튤립축제', 1993년 가을의 깊이를 전하는 '국화축제', 1994년 여름을 알리는 '백합축제'를 잇달아 개최하며 에버랜드는 '장미축제'와 함께 사계절 꽃축제를 완성했고, 에버랜드는 꽃 축제를 통해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테마파크로 성장해나갔다.

장미축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일등공신은 '별이 빛나는 밤에', '이중환의 디스크 쇼' 등 1980, 90년대 큰 인기를 모았던 라디오프로그램이었다. 장미축제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라디오 공개방송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자정이 넘도록 열기는 꺼질 줄 몰랐다. 현재는 '여성시대'로 이름이 바뀐 MBC라디오 '여성살롱'의 공개방송때면 주부들이 새벽부터 공연장을 꽉 채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을 정도다. 특히 '별이 빛나는 밤에' 최장수(12년) DJ였던 가수 이문세씨는 장미축제가 시작한 1985년도에 처음 DJ를 맡아 장미원을 무대로 공개방송과 별밤 캠프 (청취자 초청 2박3일 캠핑)등 인기코너를 진행하며 '별이 빛나는 밤에'의 최 전성기를 이끌기도 했다.



△라디오 전성시대와 함께 성장



△야간여가문화의 변화주도

한편 1990년대 들어 영·호남권에 거주하는 지방 손님들의 장미축제 관광수요가 늘자 축제기간 철도 패키지상품으로 '장미관광열차'를 운행했는데, 철도와 버스, 에버랜드 이용권이 패키지로 된 '장미관광열차'는 손님 분포를 서울,경기에서 영·호남지역으로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에버랜드는 1985년 장미축제개시와 함께 야간 개장을 시작해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1982년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된 이후 가족이나 연인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야간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고 야간오락 시설도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버랜드의 야간개장은 큰 인기를 끌었다. 마침 국산 자동차 보급이 일반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야간에 에버랜드를 찾는 발길이 이어졌다. 장미축제와 야간개장을 통해 에버랜드는 가족뿐 아니라 젊은 연인들이 찾는 축제의 대명사로 발전해나갔다.

그 결과는 자연농원 개장이래 첫 '흑자실현'과 '고객 수 증가'로 증명됐다. 마땅히 즐길 곳이 없던 20~30대 젊은 층과 가족 고객들을 발굴하면서 1986년 200만 명, 1987년 240만 명, 1988년 300만 명 등 매년 고객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장미축제개최 10년 만인 1994년에는 입장객 500만 명을 돌파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며 당시 세계 6위 테마 파크로 선정 되기도 했다.

에버랜드는 장미축제와 야간개장을 통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간을 넘어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연과 이벤트가 어우러지는 온 국민의 축제마당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장미축제 10주년을 맞아 에버랜드 장미원은 1995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선보였다. 새 단장한 장미원은 '사랑'이라는 테마 아래 미로원, 비너스 원, 빅토리아원, 큐피트원으로 구성됐다. 미로 원은 미로식 정원의 전통을 이어받은 16세기 영국식 정원으로, 비너스 원은 미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사랑의 길로 연인들을 안내하는 곳, 빅토리아원은 추상적이고 화려한 기하학적 무늬를 활용한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고전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큐피트의 화살로 유명한 큐피트원은 아름다운 조명 아래 막 사랑에 빠지는 젊은 연인들을 위한 곳으로 꾸며졌다. 장미원이 이처럼 이야기와 주제가 있고, 관람과 휴식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가장 공헌한 주인공은 당연히 장미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3만 3000㎡(1만여 평)의 장미원에는 총 650여종 3만여 주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다. 골든하트, 블루라군, 카사노바 등 전통적인 하이브리드티, 데스티니, 마틸다 등 플로리분다, 안젤라, 나헤마 등 덩쿨장미를 비롯해 제너러스가드너, 벤자민 브리튼 등 향기가 장한 영국 장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에버랜드에서 자체 육종하여 품종 등록을 마친 특별한 장미들도 볼 수 있다.

글, 사진 ; 삼성물산 (주) 에버랜드 리조트



로즈클럽 장미공부

출처 : 장미를 예쁘게 피울 수 있는 궁극의 재배 테크닉 / 저자 :스즈키미쯔오

1. 花木의 일종, 낙엽성

장미는 장미과 장미속의 낙엽성입니다.(상록종류도 있음)

봄 3월 경부터 생육을 시작하고 꽃 가지를 뺏아서 개화하고 만추에 낙엽이 떨어지고 휴면에 들어갑니다. 세계에는 약 200종에 이르는 야생종이 있고, 그것에 바탕을 두어 세계각국에서 품종개량을 진행해서 현재에는 수만 종에 이르는 원예품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원이나 화분에 즐기는 장미는 많은 원예품종으로 수천 종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2. 슈트를 갱신하는 장미, 갱신하지 않는 장미

장미는 「3년 된 늙은 가지는 자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미의 대부분은 한 포기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져 나와 자란 초목으로 되지만, 원래의 줄기로 부터 매년 슈트(새가지)를 내서 성장을 계속 하는 타입과 새로운 가지가 발생하기 어렵고, 같은 가지가 몇 년이고 계속 자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은 3년이 지나도 가지를 자르면 안됩니다.

3. 수형으로는 크게 3타입으로 나뉘어진단다. (부쉬 로즈, 슈럽 로즈, 넝쿨장미)

장미는 나무의 형태, 즉 수형으로 보면 부쉬 로즈, 슈럽 로즈, 넝쿨장미로 나뉘집니다.

1)부쉬 로즈

줄기가 서는 성질의 장미. 꽃은 사계성으로 대륜, 주로 단화로 피는 하이브리드 티나 중륜 꽃으로 피는 플로리번다 등이 포함됩니다. 미니장미도 이 타입입니다.

2)슈럽로즈

어느 정도 높은 성질의 저목, 또는 반 덩굴성의 장미, 올드로즈나 잉글리시 장미, 야생조의 일부, 모던 로즈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한 계절 피거나 다시 피거나, 사계성 개화 종이나 품종에 따라 개화습성이 달라집니다.

※올드로즈

프랑스에서 최초의 하이브리드 티, [라프랑스]가 출품되었던 1867년 이전의 재배 장미, [라프랑스]이후에 출품된 장미를 모던장미라 한다.

※잉글리쉬로즈

영국의 육종가 데이비드 오스틴이 출품한 일련의 장미를 총칭함

3)넝쿨장미

넝쿨성의 장미. 슈럽 로즈의 가지가 변형되어 넝쿨장미가 된 품종이나 올드로즈나 하이브리드티, 야생종 등과의 교배로 만들어졌던 중· 대륜의 사계성으로 피는 장미 또는 한철 피는 넝쿨장미(라지/프라우드/클 라이머), 가늘고 탄력 있는 가지를 가지는 중· 소륜으로 피는 장미, 한 계절만 피는 장미인 넝쿨장미(라인 브라)등이 있습니다.

4. 장미의 전정과 유인

1) 휴면기의 손질 덩굴장미의 재배의 포인트는 전정과 유인입니다.

2) 전정과 유인

12월 하순부터 1월 초순 사이에 행한다.(일본 동경 기준) 덩굴장미는 슈룹 로즈보다 싹이 먼저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정과 유인은 1월 초순에 합니다.

3) 슈트를 갱신하는 장미, 갱신하지 않는 장미

덩굴장미에는 슈트를 갱신하는 타입과 그렇지 않는 타입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가지나 약한 가지는 최초에 자르지만, 큰 가지에 가지 수 가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인 전에 정리하지 않고 유인 후에 가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지가 부드러운 램블러 계 품종은 슈트가 나오면 겨울에 한하지 않고 언제든지 유인할 수 있습니다.

E X) 알베리크·Viber, 가데니아, 프랑소와·쥬란빌등

4) 슈트가 나오기 어려운 장미

골덴샤와즈、新雪、스패니시뷰티(LCI- 라지플라워드 클라이머) , 덩굴아이스버그, 덩굴 골드바니, (CIF- 클라이머 플로리번다)

<전정의 포인트>

슈트가 나오기 어려운 덩굴장미의 전정(예, 덩굴 골드바니) 줄기 밑동으로 부터 슈트가 나오기 어려운 덩굴장미는 오래된 가지에 10년 이상에도 꽃을 계속 피울 수 있습니다. 큰 가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개화 가지를 2~3의 눈을 남기고 전정합니다.

* 슈트가 잘나오는 덩굴장미의 전정

가지 밑동으로부터 몇 개의 슈트를 내는 품종은 오래된 가지를 적당한 가지의 줄기 밑동으로부터 전정합니다.

<유인의 포인트>

가지는 수평이나 조금 위쪽으로 단단히 고정한다. 작업 전에 잎이 남아있으면 진딧물 등의 벌레가 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모두 잎을 떼어냅니다. 가지의 선단은 20~30센티 자릅니다. 계통이나 품종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유인의 방법은 위로 커나가는 가지를 옆으로 유도해서 수평이나 조금 위쪽으로 펜스 등에 끈으로 묶어서 이어갑니다. 이것은 가지가 수평으로 되도록 넘어뜨리면 싹이 위로 향해서 ,꽃눈을 많이 만들게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전체로 구석구석까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지를 조밀하게 유인한 뒤 더 밑동에 얇은 가지를 배치하는 것으로 밑동에도 꽃을 피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얇고 긴 가지를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줄기 밑동에 배치합니다. 소륵 종은 가지와 가지의 간격을 5센티 정도 좁혀서 유인합니다. 대륵 품종은 가지와 가지 간격을 10센티 정도 떼어서 유인합니다.

* 유인의 여러 가지 방법

✓ 펜스로 유인

✓ 터널에의 유인 : 꽃으로 덮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좋게 배치

✓ 땅바닥으로의 유인 :크니르프스 종(덩굴성 미니품종)

✓ 풀을 이용하여 유인 : 꽃이 빈틈없이 필 수 있도록 동일한 간격으로 나선형으로 유인

번역정리 ; 유병국 로자리안



장미 품종과 장미 가꾸기 Rose Varieties & Rose Care

장미의 사계

Chichy's Rose Garden

봄 화분장미 관리하기

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제가 이번 회부터 화분장미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화분에서 장미를 키우는 방법은 땅에 심은 장미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땅 정원보다 베란다 또는 옥상에서 화분으로 키우는 가드너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정원을 가진 분이라도 나의 정원과 어울리는 화분에서 장미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직 많은 것을 연구해보고 도전하는 중인 초보이지만 저의 실수와 경험이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장미를 더욱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 참고로 저는 옥상에서 봄부터 겨울까지 보내며 키우고 있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면서 지대가 높아 연중 강한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입니다. 저와 같은 환경에서 키우시는 분이시라면 이 글과 같이 키우셔도 무방하지만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지역마다, 품종마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을 정답보다는 참고용으로 생각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3월의 장미 ’

3월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으로 날이 급격이 따뜻해져 방심하다가도 꽃샘추위가 찾아와 한 순간에 수많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연중 장미 관리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해가 갈수록 계절이 모호해지고 기후변화가 심한 요즘이기에 수많은 정보들에 의지하기보다 내가 장미를 키우는 장소의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만의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월 초>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갔다가도 밤이 되면 영하로 곤두박질 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서 불어오는 바람은 굉장히 차고 매서우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장미에 특히나 위험합니다. 화분장미는 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기온 차가 너무 큰 시기에 화분의 물이 바싹 말라있다면 뿌리가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흙이 너무 바짝 마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피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물을 줄 때엔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액체비료를 섞어 사용해도 좋습니다. 화분 자체를 보온한다고 하더라도 땅에 비하면 추위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름 정도 차이로 두 번 관수 또는 물이 빨리 마른다면 희석 비율을 높여 주에 1회 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화분 중 토분의 경우에는 겨울 동안 물주기로 인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지의 경우에는 물을 너무 자주 주기보다는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를 잘 파악하고, 눈이 내리면 화분 위에 쌓인 눈은 치우는 것이 화분 깨짐을 예방합니다.



<3월 중>

장미의 싹이 붉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싹이 앞으로 나오기 전에 살균과 살충을 하고 퇴비를 주어야 합니다.

석회유황합제는 장미에 생길 수 있는 해충과 흰가루병, 흑반병 등의 병을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약입니다. 아직 싹이 채 나오지 않았을 때 작업해야 하니 강풍이 불지 않고 앞으로 3일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을 선택해서 약을 쳐야 합니다. 코니도는 봄철 장미에 가장 많이 피해를 입히는 진딧물을 퇴치하는 약입니다. 핑크색 입제 형태로 장미 줄기에 닿지 않게 주변에 뿌려주고 관수를 합니다.

살균과 살충이 끝났다면 가장 중요한 퇴비를 주어야 합니다.경험상 직접 만든 퇴비가 가장 눈에 띄는 효과가 있었지만 퇴비를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미 비료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료를 줄 때엔 화분의 가장자리 흙을 10cm 깊이로 파내고 화분 벽 가까이 막대를 바닥 부분까지 몇 차례 찔러줍니다. 이 작업은 분갈이가 어려운 화분에서 화분 안쪽까지 공기가 통하고 비료성분이 골고루 퍼지는 역할을 합니다. 이후 퇴비를 넣어주고 위로 흙을 살며시 덮은 뒤 관수합니다



<3월 말>

꽃샘 추위가 모두 물러가고 더 이상 영하의 온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붉기만 했던 싹은 잎이 되기 위해 힘차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빠르면 이 시기부터 겨우내 장미를 보호해준 보온장치들과 흙 위의 멀칭재를 걷어줍니다. 멀칭재의 경우 겨울 동안 장미의 병균과 해충이 따뜻한 멀칭재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걷어주는 것이 좋지만 제 경우에는 비용을 이유로 곰팡이 등의 눈에 띄는 부작용이 없다면 위에 덮힌 장미 잎 등의 쓰레기만 치우고 다시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라는 싹 중 한 자리에 둘 이상이 나는 싹은 가장 세력이 좋은 것만 남기고 떼어냅니다.(적아)

Tip. 단순히 줄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나무 위로 뒤집어 씌워야 하는 오벨리스크는 싹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거나 싹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면서 설치해야 한다면 3월 말 이후를 선택해야 하지만, 이미 성장이 완료되어 분갈이를 하지 않는 화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싹이 아직 올라오기 전, 흙이 녹으면 설치하는 것이 싹을 떨어뜨리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 4월의 장미 ’

<4월 중>

봄비가 내립니다. 봄비는 어떤 고가의 비료보다 더 좋은 보약입니다. 몇 차례 봄비가 내리고 나면 거짓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잎이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가급적 음지에 있는 화분들은 꽃이 머물 때까지 햇볕으로 이동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성이 좋은 화분 특성상 제 경우에는 이 시기에 정원의 전반적인 배치와 디자인을 바꾸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싹이 아닌 잎이 된 지금부터는 장미 꽃봉오리가 완숙되기 전까지 꾸준히 액체비료를 엮면 시비와 관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3월 이상 비소식이 없어야하고, 물방울이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도록 해가 뜨기 전인 새벽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말>

빠른 품종은 4월 중반부터 장미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다 완벽한 화형과 큰 꽃을 위해서는 결봉을 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적외) 결 꽃봉을 따주지 않는다면 많은 수의 부케 같은 꽃을 볼 수 있지만 서로 부딪혀 완벽한 화형이 되기 어렵고 꽃 크기가 작은 단점이 있고, 결 꽃봉을 따준다면 많은 꽃을 볼 수는 없지만 완벽한 화형의 크고 탐스러운 꽃을 볼 수 있습니다.





‘ 5월의 장미 ’

<5월 초>

이른 봄, 진딧물을 예방하는 코니도를 뿌렸지만 시기상 진딧물이 생기는 장미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너무 심할 때엔 액체 형 농약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 심하지만 않다면 가급적 손으로 직접 으깨며 잡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살균, 살충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저에게는 이 시기에 흰가루병이 생기는 장미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물주기에 특히 신경쓰고 충분한 해를 보여주고 이미 심하게 병이 든 잎은 떼주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중>

장미가 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오리가 완숙되어 꽃잎을 나타내기 전, 초록의 단단한 상태일 때까지는 꾸준히 액체비료를 살포하는 것이 좋은 품질의 장미가 피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5월 말>

드디어 장미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시기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어린 묘목이더라도 이 시기만큼은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마음껏 즐겨도 좋지만 아주 어린 묘목이거나 작은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진 장미, 꽃잎이 얇은 품종의 장미들의 경우 6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 한낮의 온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4월에는 해를 보여주기 위해 해가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면 이번에는 다시 그늘 또는 반그늘로 이동해주면 더 오랜 시간 아름다운 장미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글, 사진 ; 김치영 로자리안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국내 절화 장미 품종, ‘필립’

기존 장미 시장은 수입 위주로 연간 28억원(추정치)의 로열티가 지불되는 상황에서 해외로 품종수출을 위해 신품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해외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장미를 육성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우리 장미 품종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품종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순재, 이하 농기원)이 개발한 장미 ‘필립’이다.

‘필립’ 품종은 1999년 품종간 교배를 통해 육성한 계통을 2006년 품종과 교배하여 2007년 실생을 양성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특성검정을 통하여 2010년 국내에 ‘필립’ 품종을 출원하고 해외에 현지적응시험을 추진하여 2012년 국내에 ‘필립’으로 품종 등록하고 2014년 해외에 품종 출원하고 상표명 ‘딥퍼플’로 판매되고 있다. 분홍색 꽃잎에 가장자리 진한 분홍색의 2톤 컬러로 꽃 색깔이 화려하고 줄기에 가시가 없어 다루기 쉬우며 생육이 빠르고 수확량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1~2016년까지 콜롬비아, 에콰도르, 케냐 등 13개국에 313만주의 종묘를 판매하여 로열티를 119만\$를 거둬 들였다. 해외 생산 및 유통 경로는 남미(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에서 생산하여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지로 수출되고 있으며, 아프리카(케냐,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된 것은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되어 유통되고 있다.

또한 2012년 러시아 국제화훼박람회(IPM)에서 ‘대상’, 2014년 네덜란드 쿠켄호프 꽃 축제 소비자 ‘최고상’, 2015년 일본 동경 플라워 엑스포(IFEX)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6년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국내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종자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종자 강대국에서 개발한 품종과 겨루어 당당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필립’과 같은 품종이 꾸준히 개발되고 세계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농기원이 더욱 매진하겠다.

글, 사진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

‘일본장미 품종’



Hector Deane (HT)
1938, Samuel Davidson McGredy III
McGredy's Scarlet x Lesley Dudley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보는 밝은 주황색. 정말로 예쁜 색으로 언제나 넋을 잃고 보게 된다. 이 색채는 McGredy's Scarlet 으로부터 온 것 같지만, McGredy's Scarlet 이 「색」이라고 하는 점에서 다소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에 대해 Hector Deane 은 색채적으로 훨씬 뚜렷하다. 꽃잎이 17~25장으로 다소 적기 때문에, 곧 활짝 피워버리지만, 꽃이 오래가는 정도는 좋은 편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잘 핀다. 꽃 봉오리의 형태도 날카롭고 너무 멋지다. 옛날의 HT에 흔히 볼 수 있는 수형으로 직립성에서 길게 자란 가지 끝에 꽃이 핀다. 꽃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족부분을 돋보이는 색으로 메우고 있다. 추위에도 여름의 더위에도 강해서 키우기 쉽고 즐기는 다루기가 쉽다. 장미계절의 개막을 알려 주는, 정원에 한 그루 심기를 추천하는 꽃이다.

출처 : 164호 일본 올드 로즈 앤 냉쿨장미 클럽 회보
번역 ; 유병국 로자리안



Commandant Beaurepaire (B)
1874, Moreau et Robert

일단 1874년이라고 썼지만, 1875년으로 하는 말도 있기는 하기에 이것은 판매의 해로, 육종은 1864년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의 Moreau et Robert작품이지만, 순서가 반대로 Robert and Moreau와 같이 helpme find.com등에서는 표시된다. 다른 것은 'Sombreuil'의 작품 출시등으로 알려진 육종. Commandant는 사령관이므로, 볼 페일 사령관의 의미라고 생각된다. 계통은 일단 부르봉으로 했지만, 직계는 불명. 육성자에 의하면 한 계절 피었기 때문에 당초 계통을 Gallica rose로서 판매했지만, 1876년에 다시 피는 성질이 인정된 것에서 Panacheed'Angers라고 하는 이름으로 HP(Hybrid Perpetual)로서 재발매되었다. 직계에 관해서, Viber의 한겹으로구성된 HP(Hybrid Perpetual)장미의 실생으로 하는 설도 있어, 이 경우 본품종을 HP로 해야 할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피게 된다는 것으로 가지가 어린 때에는 완전히 한 계절 핀다. 다시 피는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점을 비추어 보면 Bourbon rose 계통으로 분류하는 근거로 볼 수도 있다.

계통에 관해서 Gallica의 분류가 살아 있는 것은 발매 당시의 분류가 그대로 남은 채로 되고 있는 것 뿐이고, 적당하지 않다. 프랑스 등의 장미로 Panachee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품종이 그 외에도 있지만 「얼룩덜룩의」로서의 의미. 본 품종도 꽃의 색깔이 얼룩덜룩 되고 있지만, Gallica rose에 보여지는 것 같은 강렬한 빨강과 흰 것의 대비라고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억제된 듯 한 진한 핑크와 얇은 핑크의 얼룩이 압축되어, 좀 멀게는 얼룩덜룩의 품종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가지는 직립으로서 별로 장소를 차지하지 않는다. 잎의 색깔은 다소 얇은 초록이기 때문에, 약간 진한 색의 꽃과 잘 맞아 아름답다. 완만한 컵의 꽃이 피는 모양이다.

출처 : 165호 일본 올드 로즈 앤 넝쿨장미 클럽 회보
번역 ; 유병국 로자리안

장미정원 디자인

절화 장미는 지금까지도 화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이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 장미꽃을 선물하고 있다. 예전에는 장미꽃 100송이를 선물하던 때가 있었다, 그만큼 장미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는 많이 있다. 얼마 전 미녀와 야수를 영화로 보고 왔다. 영화 속에서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것이 있다. 작은 것 하나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그들의 생각의 틀이 부럽기만 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번 5월에 있을 정원문화축제를 통해서 장미를 더 재미있고, 다양한 방법의 활용방법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정원에서 장미는 정말 많은 이야기와 문화를 담고 있다. 기회가 되는 데로 잘 정리해 보고 싶은 생각을 줄곧 하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장미정원 디자인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려 한다. 정원은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 공간을 통해서 각각의 공간이 가지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어렵고 동시에 재미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럼 장미정원 디자인은 무엇이 다른가?



왜 장미정원 디자인이 필요한가?

장미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보다 그 불량이 많아 함께 서서히 찾고 연구해 보면 좋겠다.

오늘은 정원 장미 디자인에서 있어서 화단 장미, 화분 장미, 지피 장미, 울타리로 쓰이는 장미, 덩굴 장미, 경관 장미, 혼합 품종 장미 식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하고 있는 책자는 "Everyday Roses"를 참고하고 있음을 알려둔다.

정원에서 장미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은 디자인에 있어서 좋은 구분이라 생각한다. 즉 경관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익히게 되면 어떤 공간이 주어졌을 때 좀 더 효율적인 경관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원 장미는 온갖 모양과 크기를 갖추고 다양한 색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품종을 정리해 보니 그 수가 상당해서 한 번에 알기란 참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화형과 습성 그리고 색상을 알고 있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되겠다.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꽃들이 피어나고, 품종마다의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될 수 있다.

또한 장미와 함께 시시 때때마다 함께 피는 식재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더 화려하고 나만의 정원을 완성하는데 좋은 방법이 된다. 장미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와 로마인들의 장미 생활사와 음악이나 화가들의 비추인 예술인들의 장미를 생각하며 영감을 얻는다면 우리의 작은 장미정원은 더 풍성한 정원이 될 것이다.



화단에서의 장미를 알아보자.

장미는 어떠한 종류의 화단 내에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준다. 다양한 색깔, 화형과 크기, 그리고 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근식물, 일년생 식물, 다년생 식물, 관목 등의 식물들과 함께 하면서 더 멋진 풍경을 만들어 준다. 장미만 가지고 풍경을 만들 때와 다른 식물과 함께 한 장미원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두 정원의 차이점을 빨리 알 수 있다.

푸른 빛깔의 잎이나 꽃이 피는 식물은 그 색깔들이 장미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 식재 시 다른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파란색 장미를 만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장미꽃의 색상이 참 다양하다는 것이 화단의 색상을 연출하려는 정원사에게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준다. 새 신부의 순수함과 같은 흰색에서 어린아이들의 움직임과 같은 노란색 그리고 연한 핑크에서 붉은색과 검붉은색까지 가벼움과 무거운 느낌까지 그 색상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작은 화단은 귀여운 장미원으로 큰 화단은 웅장하면서도 큰 화폭을 그려내는 화단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장미정원의 화단은 그래서 좋은 연출 방법이다.



화분 장미

우리와 같이 땅이 작고 바쁜 현대인들에게 화분 장미는 매력적인 연출 방법이다. 물론 단점으로는 관수를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즐거움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식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품종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화분과 연계한 작은 레티스 하나 만으로도 큰 경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모든 품종을 화분에서 가꾸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카페의 넓은 데크 위나 휴식공간의 블록 위에는 화분 장미가 하나의 경관이지만 강한 인상을 남겨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매장의 입구 또는 현관 주변에 화분 장미를 놓는다면 사계절 주변의 분위기를 경쾌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고 동시에 당신의 솜씨에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야기할 것 같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화분 장미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화분에 충분한 토양과 건강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장미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다. 물론 배수가 되는 화분을 선택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플라스틱 화분과 토분 또는 목재 화분에 따른 결과를 지켜보지는 못했지만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의 화분에서 잘 성장하는 것 같다. 내가 자주 가고 있는 커피해피란 커피 집 입구에는 화분 장미가 오가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있다.



화분의 크기는 넓이와 깊이가 최소 45cm 이상이면 좋고 그 이상이면 더 좋겠다. 화분 내부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토양은 영양분이 고갈되므로, 몇 년마다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시기적으로는 이른 봄철과 같이 가지치기를 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화분 장미는 정원에서 위치를 조금만 변경해도 다른 느낌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정원에 앉아 음악과 차를 마시며 그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해 보는 시도를 해 보자. 정원의 또 하나의 즐거움은 상상의 즐거움이다.



지피 장미의 이용

지피 식물(ground-cover)용도의 장미는 다양한 용도로 식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해준다. 주택에서 대문을 지나 현관까지 가는 길이나 화단 장미에서 관목장미 앞쪽으로도 지피 장미는 관목 장미를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왜냐하면 이들이 낮게 퍼져 나가는 습성이 그들 뒤에 있는 관목 장미의 무릎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또는 테라스 벽의 꼭대기에 놓아 보자. 테라스의 직선적이 딱딱함이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장미의 줄기가 지면에 접촉함에 따라서,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확장하는 뿌리의 연결망은 여름철 홍수기간 동안 토양을 붙잡아 두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확실히, 이 꽃은 흔하게 사용되는 담쟁이덩굴(ivy)보다 더 멋진 법면을 만들어준다.

울타리 장미

장미는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장미는 위에서 아래까지 전체적으로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여러 계절 동안 울타리에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경관을 만들어 준다. 또한 울타리 안쪽으로는 향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벤치라도 가져다 놓는다면 인기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만약 울타리가 긴 거리로 조성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철재나 목재 울타리를 가끔씩 보이게 하면서 그 사이로 장미꽃이 덩어리로 보이게 하는 방법도 좋다. 또는 전체적으로 장미꽃으로 장식하고 싶다면 눈앞에서 흰색 장미꽃으로 시작해 멀리 보일수록 진한 붉은 장미꽃으로 계획해 보자. 자연이 만들어주는 색 잔치에 모두가 감탄할 것이다.



덩굴장미

장미는 어느 식물보다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덩굴 장미 품종과 그에 따른 연출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평면적인 장미정원에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 준다. 또한 정원의 입구나 벽면을 장미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방법이다. 연출하는 방법도 조형미가 있는 구조물에서부터 시작해 나무 기둥 몇 개로도 충분히 멋진 덩굴 장미원의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연출은 유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화폭이 큰 장미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덩굴 장미원에서는 유인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된다.

유인할 때 모든 줄기에서 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평 방향과 45도 경사 각도의 사이로 주 줄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유인 작업할 때는 장미가 어느 지점에서 피어날지 보면서 유인하고 있다. 그리고 유인된 줄기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뿌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퍼걸러에 장미를 올리면 장미 그늘과 함께 천연의 꽃 향기가 내 머리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상상만 해도 큰 즐거움이 된다.

장미정원은 여러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서 연출이 가능하다. 오늘은 연출 형태에 따른 구분 방법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다. 어느 공간이 되었던 장미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장미 정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함께 장미정원에 대해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원고를 읽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 메일로 답신을 부탁한다.

(allday31@naver.com)

글, 사진 ; 이성현 로자리안



장미서적 소개

‘장미 병해충과 생리장애 이렇게 막는다’

저자 차병진 외

이 책의 구성과 책을 읽고 난 후의 생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이 책은 충북대학교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센터에서 원예농민과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풀어 쓴 전문서적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제 막 장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면, 이해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본문은 1장 장미에 대한 기초지식(장미란?, 식물의 이상증상), 2장 장미의 전염병(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스, 바이러스, 선충에 의한 병), 3장 전염되지 않는 장미병(생리적 장애, 영양 결핍 및 과잉, 염류 농도에 의한 이상, 환경 불균형, 오염물질, 농약 독성), 4장 장미 해충에 의한 피해와 대책 순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서론에 이어, 미생물에 의한 병, 환경요인에 의한 이상, 해충에 의한 피해 순으로 발생빈도와 중요도에 따라 정리하고 그 예방과 대책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병해충 및 환경장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적당한 방제법과 방제약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병의 박멸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해충억제를 위해 천적을 이용하는 방법, 해충을 죽이는 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 해충의 의사소통 수단인 페르몬을 이용하는 방법 등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그 필요성이 매우 큰 환경 친화적인 생물적 방제법에 대하여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지금 세계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인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병·해충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책의 저자는 병이 발생하고 나서야 움직이지 말고 평소에 많은 경험을 쌓아두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식물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이 책 한 권으로 장미의 모든 병·해충을 알고 넘어 가겠다는 굳은 의지 보다는 오히려 정성껏 심고 기르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책에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예방책도 함께 알아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책의 구성과 이 책을 통해서 기자가 이해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책을 활용하여 장미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를 더 심어 볼까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올해는 장미가 일찍 품절되었습니다”라는
글귀에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장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장미를 소개하는 국내의
책을 구입하려 하면 없거나 절판되어
결국, 외국서적에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책
“장미 병해충과 생리장애 이렇게 막는다”도
어렵게나마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글, 사진 ; 황보순로자리안



봄호 | 2017. 3. 31 | 발행처 _서울로즈클럽
주소 _경기도 광주시 탄벌길 108 너싱홈그린힐